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

6병동 조정희 간병사



안녕하세요? 6병동 간병사 조정희입니다. 제가 간병사 생활을 한지도 어느새 일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일 년 동안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니, 가슴 속에 존경, 그리움, 사랑이라는 세 단어가 남겨졌습니다.

입사하던 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덜렁대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웃으며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던 선배님들, 한없이 다정하시다가도 제가 조금이라도 어르신들께 소홀히 하거나 잘못 행동했을 땐 눈물이 썩, 빠지도록 따끔하게 야단쳐 주시던 선배님들 덕분에 저는 서서히 간병이라는 생활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 간병,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제가 정성껏 돌봐드리던 한 어르신께서 식사를 전혀 드시지 못해 몹시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께서 어르신께 다가가 다정하게 친딸처럼 수발을 들어 드리자, 어느새 식사를 다 드시고 고맙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또 항상 같은 말 몇 마디만 반복하시는 어르신의 말을 알아채지 못해 몹시 당황해 하고 있을 때, 선배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읽어 손발이 되어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다정한 친딸이 되기도 하고, 사랑을 품은 엄마가 되기도 하는 선배님들. 처음으로 어르신의 임종을 대할 때도 선배님들의 조심스럽고 진심어린 행동에 절로 숙연해지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간병이란 단순히 식사 드리고 보살펴 드리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을 전하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

▽ 그리움을 간직한 행복한 어르신들



저희 병동에는 집에 가겠다고 나가려 하시는 분이나 자식을 찾아다니시며 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느 날,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계시던 한 어르신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더군요. “지난번에 나를 여기다 두고, 아들이 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간다고 했더니, 그 후 아들은 한동안 오지 않았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말이야... 그러다 다음번에 왔을 땐 일부러 울지 않았어. 갈 때는 서운했지만 나 때문에 저희들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아들 인생도 있는데 그래야 또 보러오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르신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 “어르신 저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 방에 좋은 친구분들도 계시잖아요” 했더니 “맞어! 맞아!”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웃으시지만, 그 속내에 함부로 드러내지 못한 깊은 그리움과 아픔을 간직하신 어르신들. 그 분들이 늘 희망과 웃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친딸처럼, 다정한 엄마처럼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 사랑, 흔하지만 어려운 그 말



얼마 전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해드리지 못한 사랑이라는 말을 돌아가신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수첩 속에는 늘 보고 싶어 하시던 자식들의 빛바랜 사진이 흐릿하게 있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에게 못 다한 효와 사랑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선택한 간병사. 이곳에서 간병사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어르신들의 애환, 부모의 사랑, 자식에 대한 그리움 같은 애뜻하고도 슬픈 사랑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곁에서 돌봐주며 간병사일을 잘 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6병동 간병사분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곱해서, 삶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